**나의 모국어, 수어**

2019077183 이혜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를 발견했다. 한국어, 영어, 이러한 언어들처럼 수어도 ‘언어’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꽤나 놀라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쌍둥이 수현이와 승현이 가족을 보면서 두가지 언어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모습을 보았다. 수어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승현이가 자유로워 보였다. 수현이도 엄마도 아빠도 승현이와 대화하기 위하여 수어를 배운다. 언어가 주는 힘이 그런 것임을 깨달았다. 같은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서로 소통할 수 있음이 새삼스러웠다. 이 과목을 들을 때 나의 마음 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책임감과 즐거움으로 임하고 싶다.

다큐를 보면서 내가 몰랐던 농인들의 니즈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교육 부분이 눈에 갔다. 원래도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의 교육 사각지대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소수이더라도 그들의 니즈는 분명하고 그를 위한 해결방법도 분명히 필요하다. 수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학교 교육과정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존재할지 궁금하다. 또한 그러한 니즈가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나조차도 이 다큐를 보면서 처음 알았으니 말이다. 농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은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더불어 수어에 대한 자연스러움이 있어야한다.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생겼다.

일단 아닌 것 같다. 뉴스와 같은 공식 영상을 보면 항상 수어가 우리 눈 앞에 보이지만, 한번도 농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것 같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상관 없이 살았던 것도 사실이다. 농인은 수어를 다 잘 하는 사람들일줄 알았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구어를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부분이 꽤나 충격적이었다. 당연히 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음은 부정확 할 것이고, 수어가 더 소통에 적합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지 마음이 아팠다. 영상의 일부에서 나온 것처럼 교사분들께서도 수어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수어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혀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언어를 얼른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진짜 ‘나’가 된 것 같다는 영상 속 말을 보고, 마음이 찡했다. 그리고 수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표정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다. 동작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표정이 함께 말을 하는 것 같다. 표정만 보아도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전달되니 말이다. 그래서 이번 학기 수어를 배울 때 나도 표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를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농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수어도 하나의 언어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